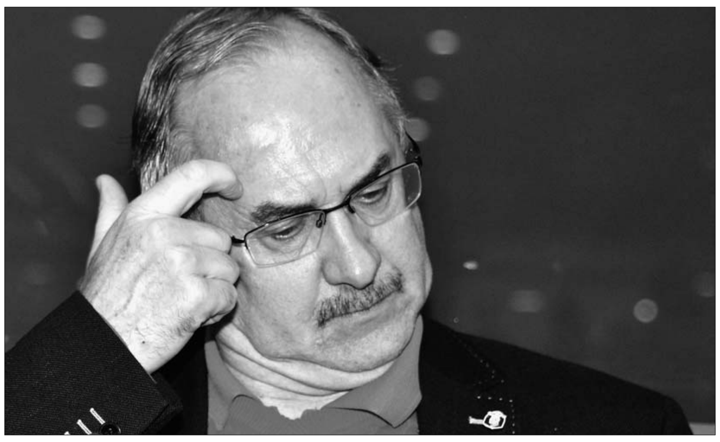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팀 분위기 수습하는 것”

슈틸리케 감독, 대표팀 내 기강 확립 나서



유럽파 선수들의 점검을 마친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내 기강 확립에 나섰다.

슈틸리케 감독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팀의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7일 영국으로 출국해 8일 열린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이후에는 독일로 넘어가 분데스리가 소속 구자철, 지동원의 컨디션을 점검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일정상 만나지 못한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과 팀 분위기와 사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소집 때는 장시간 이야기가 어렵지만 이번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난 여론도 있지만 선수들과 이야기 한 결과 한 목소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본선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 좀 더 자신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네 선수들 외에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박주호(도르트문트)에게도 많은 신경을 쏟는 모습이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두 선수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이적시장이 열리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 여름 (이적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어 “이청용과 박주호는 최근 대표팀에 못 왔지만 계속 애정을 갖고 관심있게 내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소개했다.

2015년 10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차예선에서는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최종예선에서는 주춤하는 중이다. 지난달 중국전 0-1 패배와 시리아전 1-0 신승 이후에는 경질 위기에 몰렸지만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유임을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기술위원회는 슈틸리케 감독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코치 합류와 선수 선발 개입 등을 천명했다.

이에 슈틸리케 감독은 “기술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조직이다. 분명 어떤 생각을 갖고 평가를 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맞는 추천을 한 것”이라면서 “나 또한 성적에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새롭게 선발할 코치의 역할을 두고는 현재 필드의 설기현 코치와 골키퍼 코치, 피지컬 코치가 있다. 새로 올 코치는 팀의 기강이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은 내부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내부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과감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4승1무2패(승점 13)로 본선 직행의 마지노선인 2위를 유지 중인 한국은 오는 6월 13일 카타르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막판 순위 싸움에 돌입한다.

“카타르전은 앞선 경기들과는 다른 준비 과정을 거칠 것이다. 준비 기간이 어느 때보다 길다”면서 “전술과 새로운 선수 실험 등으로 변화를 줄 것이다.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도 현지 적응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민근기자

“누가 나를 의심했는지 모르겠다”

호날두 ‘원맨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레알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2-1 격파

역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였다. 호날두가 원맨쇼를 펼치며 바이에른 뮌헨 격파에 앞장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한국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2-1로 꺾었다.

두 골 모두 호날두의 발끝에서 나왔다. 호날두는 0-1로 끌려가던 후반 2분 다니엘 카르바할의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해 뮌헨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2분에는 감각적인 오른발 슛으로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후반 16분 하비 마르티네스의 경고 누적 퇴장을 유도한 이 역시 호날두였다.

지난해 9월 도르트문트전 이후 659분 간 챔피언스리그 득점이 없던 호날두는 이날 멀티골로 완전한 부활을 알렸다.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97골·FC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유럽 대항전 사상 첫 100골 달성이라는 금자탑도 쌓았다.

호날두는 “누가 나를 의심했는지 모르겠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실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어려운 팀을 상대로 이 곳에서 뛰는 것은 쉽지 않다. 후반전에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우리는 아주 잘 뛰었고 일찌감치 득점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더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었다. 호날두 역시 해트트릭 달성이 가능했지만 뮌헨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에 막혔다.

호날두는 “노이어는 아주 좋은 플레이로 몇 차례 선방을 선보였다. 노이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입맛을 다셨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19일 홈에서 뮌헨과 2차전을 갖는다. 0-1로 패하거나 무승부를 거둔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4강에 진출한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성료’

세계문화유산 도시 익산에서 13일 전북도장애인론볼연맹(회장 박현목) 주관으로 개최된 제6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애인의 체육·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장애인 육성을 위해 치러진 이번 대회는 15개 시·도에서 22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토너먼트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론볼은 집중과 신중을 기하는 정신력이 필요한 운동인 만큼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 세계유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등을 둘러보고 익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김수연 은퇴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에서만 13년을 뛴 김수연(31·사진)이 코트를 떠난다.

KB국민은행은 13일 프랜차이즈 스타 김수연이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KB국민은행에 입단한 김수연은 12시즌 동안 269경기에 출전해 평균 6.9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다.

2007년 퓨처스리그에서 평균 20개, 2007~2008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KB국민은행의 골밑을 책임졌다.

그러나 2014년 아킬레스건 파열과 무릎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다.

결국 김수연은 체력적 부담과 부상 부위 통증으로 안정적인 플레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은퇴를 결심했다.

김수연은 당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제 2의 인생을 설계한다.

KB국민은행은 다음 시즌 홈경기에서 김수연의 은퇴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MLB추신수, 에인절스전 2경기 연속 안타 행진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전날 에인절스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 이날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8에서 0.231(26타수 6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팀이 5-3으로 앞선 5회 1사 1루에서 추신수는 상대 구원 호세 알바레스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끝에 좌측 외야에 빗맞은 안타를 날렸다.

텍사스는 에인절스를 8-3으로 물리쳤다. 텍사스는 시즌 3승째(5패)를 수확했다.

/김민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